

# [7월 2주차] 산업시 주간동향 보고

<26.7.10. 한국산업지능화협회>

구분	26/7/2주 산업시 동향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산업시 관련 국내 정책 동향</b></p>	<p><b>· 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,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부, 전국 산업단지의 M.AX(제조AI 전환)·GX(무탄소 전환)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올해 900억원, 향후 3~4년간 총 3,000억원 국비 투입 계획 발표</li> <li>- AI 실증산단 구축, 5G 특화망, 옛지 AI 데이터센터 실증 등 M.AX 분야 5개 사업을 중심으로 산단 전반의 제조 AI 인프라 확산 본격화</li> </ul> <p><b>· 산업부, 제조 현장 넘어 기업활동 전반으로 AX 확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부, 기존 제조공정 중심 AI 도입에서 생산계획·공급망·제품설계 등 기업 경영 전반으로 M.AX 적용 범위 확대하는 'AI 에이전트' 사업 신규 추진</li> <li>- "AI 전쟁의 승패는 산업 현장에서 결정될 것"이라는 기조 아래 AI 솔루션·에이전트 사업에 총 188억원 투입, 제조 AX 전면화 본격화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글로벌 산업시 동향</b></p>	<p><b>· 안보 규제 허들 넘은 美 AI 3대 축..모델 출시' 너머 미·중 기술 패권 전쟁 속으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픈AI·앤스로픽·xAI 신모델 동시 출시 속, 미 정부가 첨단 AI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며 출시 전 안전성 검토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흐름이 가시화</li> <li>-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상황에서,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자국 기업 혁신을 늦춰 중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가 부각되는 중</li> </ul> <p><b>· AI 기술 장벽 높이는 中... 첨단 모델 해외 접근 제한 검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 당국, 알리바바·바이트댄스 등 주요 AI 기업과 최첨단 모델의 해외 접근 제한 방안 논의, AI를 반도체에 준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명</li> <li>- 미·중 양국이 모두 첨단 AI 모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AI 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모델·데이터 영역으로 확대되고 미·중 AI 디커플링 가속화 전망</li> </ul>

1) [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,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](#). 26.7.10.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
 2) [산업부, 제조 현장 넘어 기업활동 전반으로 AX 확대](#). 26.6.23 연합뉴스  
 3) [안보 규제 허들 넘은 美 AI 3대 축..모델 출시' 너머 미·중 기술 패권 전쟁 속으로](#). 26.7.10 프리진경제  
 4) [AI 기술 장벽 높이는 中... 첨단 모델 해외 접근 제한 검토](#). 26.7.8. 조선비즈